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및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실패내성의 매개효과*

김유진** · 김종운***

초 록

본 연구는 중학생 시기가 학교부적응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변인들 간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총 861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비합리적 신념,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 학업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비합리적 신념은 학업실패내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었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실패내성에는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었으나, 학교생활적응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실패내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으며 그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합리적 신념과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실패내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합리적 신념 및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학업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구조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학업실패내성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업실패내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성취상황에서 가정 및 학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해야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비합리적 신념,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 학교생활적응, 학업실패내성

* 본 연구는 김유진(2010)의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교신저자, ujinnissam@naver.com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I. 서 론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적응능력이 매우 필요하다.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안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Gonzales, Tein, Sandler & Friedman, 2001). 학생들에게 있어 특히 학교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으로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라는 환경에서의 적응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삶의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나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으로 교육적 기회를 낭비하기 보다는 최대한으로 잘 적응된 생활을 영위하기를 당연히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청소년기는 높은 교육적 기대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면서, 또래와 성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심리적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나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갖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심수정, 2003; 이숙, 우희정, 김미란, 2000). 따라서 학교생활을 통해 접하게 되는 여러 상황과 환경을 건강하게 수용하지 못하여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적응 행동은 교사나 교우와의 관계, 교과활동이나 학교행사 등 학교환경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생활에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학습활동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환경의 많은 부분이 학습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학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더욱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관심과 조력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경우 환경적 변화, 즉 새로운 학교환경에 대한 변화된 적응력을 필요로 하는 첫 출발점으로서, 이에 많은 학자들(김은옥, 2008; 이규미, 2005; 이연희, 2009; Block & Block, 2006; Mischel, Shoda & Peake, 1988)이 중학생 시기를 학교부적응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다각도의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는 개인적·심리적 특성과 가정 및 학교와 같은 사회적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구본용, 2007; Donna, 2001; Missall, 2002). 개인적·심리적 변인으로는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 신념, 학업실패내성, 학업성취 등이 대표적이며, 사회적 변인으로는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등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데서 그치고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각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는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각 변인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개인 내적변인으로서 비합리적 신념을, 주요한 개인외적변인으로서 부모의 성취압력을 각각 선정하고, 이들이 학업실패내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비합리적 신념에 대하여 Ellis(1962)는 인간의 부적응 행동과 정서는 바로 그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체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 설명하였고,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구본용, 2007; 김희영, 2003; 신은주, 2009; 이성근, 2005; 이옥영, 2005; 조복미, 2001; 하정희, 조한익, 2006a, 2006b; Davies, 2006; Koffler, 2005)에서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이 그가 경험하는 부적응적인 정서장애 및 행동장애 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의 행동이 사고나 신념에 기인하고 있다면 학교생활의 적응 혹은 부적응 행동도 마찬가지로 사고나 신념에 기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김희영, 2003).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태도나 행동에 근거하여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여기서 중요한 타인이란 가정에서의 부모나 학교에서의 교사나 또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상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므로 비합리적 신념이 더욱 확고해지고 그것을 확인하여 부적절한 믿음으로 내면화하는 장소로서 학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강명희, 1999; 이우경, 1998).

비합리적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엄격한 기준과 평가를 통해 학업과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목표달성과 생산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적 정서나 행동을 많이 보인다(모혜연, 2000). 또한 자기기준이 높으므로 결과에 대해 성공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목표로 인해 결과기대감이 낮아지기도 하며 실패공포로 인한 자신의 과제 수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urns, 1980).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환경적 요구에 대처할 때 자신의 잘못이나 과제의 어려움을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능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의 일상 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 개인이 학업 상황에서 갖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활동과 학습의 성취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용래, 허남진, 2003; 문은식, 2002a; 최미자, 2006).

다음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자녀관계를 들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최초의 교육자이자 그들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가 어떤 환경을 갖고 그들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장발달 및 행동양식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며 여러 가지 습관의 훈련을 받으면서 사회화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성격의 근본이 형성된다(권미화, 2006; 이화정, 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동기적 측면과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김애경, 2002; 박정근, 2002; 이은영, 김경혜, 2005; 이지연, 하정희, 전수현, 2006; Flett, Hewitt & Singer, 1995; Gonzalez, Greenwood & WenHsu, 2001; Gonzalez, Holbein & Quilter, 2002)의 결과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다양한 발달적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취 상황에서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적응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김애경, 2002; 박영미, 2004; 이미라, 2001; 이혜경, 2009; Donna, 2001, 2004; Missall, 2002).

현대 산업사회가 지식과 기술을 우선으로 하는 물질만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능력위주로 타인과의 경쟁에서 스스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는 생존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과중한 기대압력을 주게 된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가져보지 못했던 돈, 학력, 지위를 자녀가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보상 심리 때문에 자녀의 능력, 흥미, 포부를 무시하고 공부나 경험을 강요하여 자녀를 경쟁 속에 몰아넣고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자신의 좌절된 욕망이며 일종의 과

잉기대증후로서 성공지향을 부채질하고 있다(박수자, 1996). 여기서 학교에서의 생존수단이 되는 학업성취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당연히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으며, 사춘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이 이러한 학교와 부모의 성취압력에 따른 부담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기는 벅차고 힘들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부모의 성취압력이 강할수록 자녀들은 심리적인 강한 압박으로 인해 정서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체념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일 것이 우려된다. 즉, 부모의 성취압력이 심리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학생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고 나아가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성취압력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차가 있으며 그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수준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동일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그것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다. 즉, 객관적인 외부환경이나 경험하는 사건의 실제보다는 경험의 주체인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Beck, 1976; Ellis, 1962). 이러한 경쟁과 압력을 꾸준히 이겨내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성숙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담으로 건전한 사춘기를 보내지 못하고 인성개발과 학교생활적응에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일탈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등 개인차를 보인다(전경진, 2007). 따라서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보고를 통해 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을 주요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잘 예언하는 주요한 동기변인으로서 학업실패내성을 들 수 있다. 학업실패내성이란 건설적 실패 이론의 입장에서 학습자가 학업 상황에서의 실패 경험에 대하여 비교적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와 좌절에 대한 반응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김아영, 1997). 교육현장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 동안 겪게 되는 실패 경험에 대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 양상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일반적으로 실패는 누구에게나 혐오적인 경험일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혐오감을 특히 심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감정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집착하는 학습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를 빨리 정리하고 후속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적인 대처 경향을 보이는 학습자도 있다. 특히 끊임없는 도전과 평가, 경쟁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실패 경험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 양상은 후속적인 과제 수행의 지속적인 축진의 문제와 관련된다(김아영, 1994; 오희숙, 2002)는 측면에서 실패에 대한 반응은 학습활동의 동기적 기제로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실패에 대한 내성은 실패 상황에 노출되고 난 후의 학습자들의 감정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을 잘 예언해 주었으며, 실패내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실패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Clifford, Kim & McDonald, 1988; Kim & Clifford, 1988). 학교교육의 많은 부분이 학습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에서의 실패 상황을 보다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학습자들은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이 학습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과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실패내성을 매개로 했을 때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행 연구(김아영, 2002; 김영호, 2008; 채호숙, 2007)를 바탕으로 학업실패내성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학업실패내성이 비합리적 신념 및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교생활적응을 어떻게 매개하는지에 대해서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델(그림 1)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합리적 신념은 중학생의 학업실패내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은 중학생의 학업실패내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중학생의 학업실패내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비합리적 신념과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실패내성을 매개로 하여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4개 중학교의 1~3학년 남·여학생 총 10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92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반응이 불성실한 59명을 제외한 861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시방법은 연구자가 각 담임교사에게 실시 의도와 목적을 설명하고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 분	남	여	계
1학년	111명	132명	243명
2학년	134명	159명	293명
3학년	150명	175명	325명
계	395명	466명	861명

2. 연구도구

1) 비합리적 신념 척도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박재황(1981)이 작성한 개인 신념에 관한 질문지와 Jones(1969)가 개발한 IBT를 신현균(1990)이 번안하여 재작성 하였고(Cronbach $\alpha = .83$), 이를 다시 송준호(1993)가 재구성한 비합리적 신념검사(Cronbach $\alpha = .89$)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과도한 자기 기대 신념, 이분법적 신념, 결정론적 신념, 과잉염려 및 회피 신념, 과잉의존 신념의 5개 차원으로 분류되며,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문항에 걸친 Cronbach α 는 .83이었으며, 하위척도별로는 과다한 자기 기대 신념 .88, 이분법적 신념 .69, 결정론적 신념 .75, 과잉 염려 및 회피 신념 .82, 과잉의존 신념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 척도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김기정(1984)의 부모양육태도 검사에 포함된 성취압력 관련 문항과 윤영섭(1988)의 부모의 관심도 검사에 포함된 성취압력 관련 문항을 김경옥(1992)과 박수자(1996)가 아동을 대상으로 20문항으로 재구성한 검사(Cronbach α =.87)를 연구자가 재분석하여 내적합치도를 저해하는 2개 문항을 제거하고 중학생에 알맞게 용어를 수정·보완한 후, 교육학 전공 교수의 자문을 구하여 최종적으로 선별된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의 성공과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과 성취압력 수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척도의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문항에 걸친 Cronbach α 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본 척도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전체문항을 4개의 항목묶음(item parceling)으로 처리하여 관측변수로 설정하였다.

3) 학업실패내성 척도

중학생의 학업실패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아영(1994)이 개발한 한국형 학구적 실패내성 척도를 오희숙(2002)이 재구성한 것(Cronbach α =.78)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첫째, 개인이 학업적 과제의 곤란도에 대해 보이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으로서 ‘과제수준선호’, 둘째, 개인이 실패 경험 후에 보이는 감정적 반응의 긍정·부정의 정도로서 ‘감정’, 셋째, 실패 경험 후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강구하며 어떠한 극복행동을 취하는가하는 ‘행동’의 3개 차원으로 분류되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

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실패내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문항에 걸친 Cronbach α 는 .77이었으며, 하위척도별로는 과제수준번호 .80, 감정 .78, 행동 .63으로 나타났다.

4)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유윤희(1994)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척도와 Noltan(1994)의 학생사회지지척도를 이미라(2001)가 수정·보완하였고(Cronbach α =.83), 이를 전해경(2007)이 5개의 하위영역으로 재구성한 것(Cronbach α =.75)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학업성취의 5개 차원으로 분류되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문항에 걸친 Cronbach α 는 .89이었으며, 하위척도별로는 교사관계 .82, 교우관계 .79, 학교수업 .79, 학교규칙 .80, 학업성취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및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구조회귀모델을 연구모델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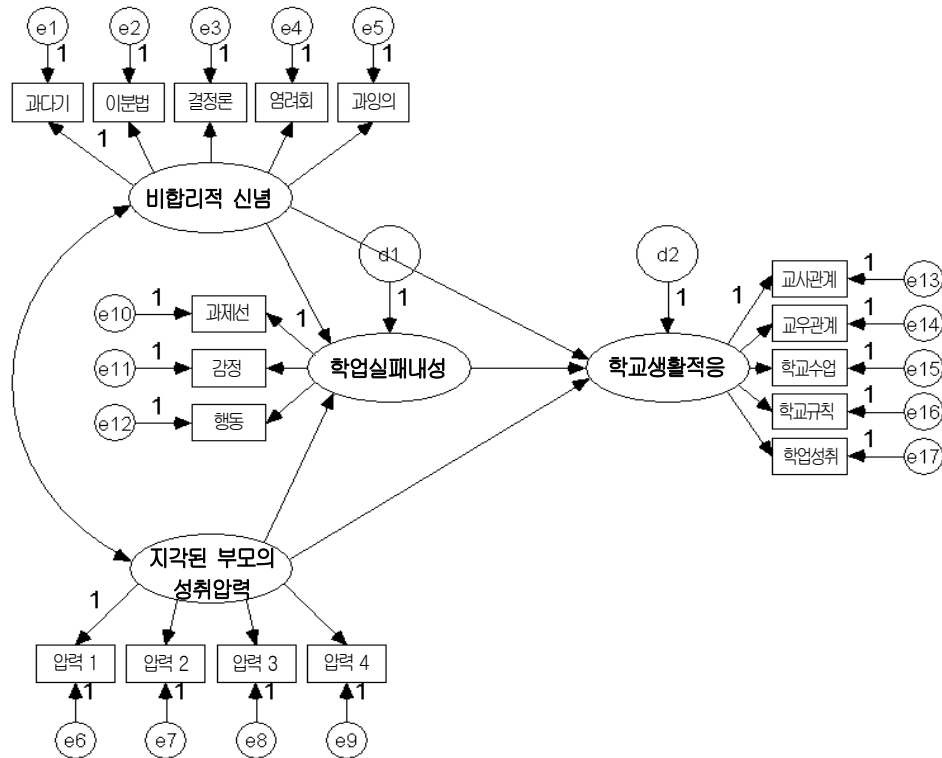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델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 16.0의 다변량 정규분포성(multivariate normality)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회귀모델(structural regression model) 하의 관측변인들에 대한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단변인별 왜도(-.293~.582)와 첨도(-.390~1.090) 모두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하여 다변량 정규분포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용하여 모델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모델적합도는 χ^2 값(=CMIN)과 절대적합도지수(absolute fit index)인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그리고 상대적합도지수(relative fit index)인 CFI(comparative fit

index), NNFI(nonnormed fit index=TLI), 5) 90% 신뢰구간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다(문수백, 2009; Kline, 2005). 또한 모델의 간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간명적합도지수(parsimony fit index)인 PCFI(parsimony CFI)와 PNFI(parsimony NFI)를 채택하였다. 간접효과는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변인 간 상관 분석 및 기술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관측변수들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우선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비합리적 신념,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 학업실패내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측변수 간에는 유의수준 5% 또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잠재변수 내의 관측변수들 간에 .90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수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수백, 2009).

표 2
관측변수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평균, 표준편차(N=861)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000																
2	.689 ^{***}	1,000															
3	.528 ^{***}	.510 ^{**}	1,000														
4	.658 ^{***}	.540 ^{**}	.647 ^{***}	1,000													
5	.490 ^{**}	.490 ^{**}	.538 ^{***}	.595 ^{***}	1,000												
6	.190 ^{***}	.225 ^{**}	.246 ^{***}	.199 ^{***}	.168 ^{**}	1,000											
7	.101 ^{***}	.165 ^{**}	.218 ^{***}	.141 ^{***}	.185 ^{***}	.807 ^{***}	1,000										
8	.091 ^{***}	.149 ^{**}	.217 ^{***}	.122 ^{***}	.144 ^{***}	.806 ^{***}	.790 ^{***}	1,000									
9	.173 ^{***}	.182 ^{***}	.170 ^{***}	.149 ^{***}	.160 ^{***}	.785 ^{***}	.745 ^{***}	.724 ^{***}	1,000								
10	.094 ^{***}	.084 ^{***}	-.114 ^{***}	-.077 ^{**}	-.031 [*]	.071 [*]	.046 [*]	.064 [*]	.047 [*]	1,000							
11	.627 ^{***}	.478 ^{**}	.367 ^{***}	.504 ^{***}	.348 ^{***}	.297 ^{***}	.217 ^{***}	.185 ^{***}	.295 ^{***}	.219 ^{***}	1,000						
12	.268 ^{***}	.243 ^{***}	-.040 [*]	.051 [*]	.061 [*]	.155 ^{***}	.091 ^{***}	.087 ^{***}	.089 ^{***}	.456 ^{***}	.300 ^{***}	1,000					
13	.165 ^{***}	.115 ^{***}	-.039 [*]	-.020 [*]	.045 [*]	.026 [*]	-.021 [*]	-.028 [*]	.056 [*]	.309 ^{***}	.118 ^{***}	.360 ^{***}	1,000				
14	.271 ^{***}	.172 ^{***}	-.056 [*]	.008 [*]	.003 [*]	-.117 ^{***}	-.175 ^{***}	-.133 ^{***}	-.072 ^{**}	.110 ^{***}	.037 [*]	.168 ^{***}	.330 ^{***}	1,000			
15	.195 ^{***}	.120 ^{***}	-.098 ^{***}	-.068 [*]	-.058 ^{**}	.028 [*]	-.023 [*]	.015 [*]	.032 [*]	.468 ^{***}	.122 ^{***}	.517 ^{***}	.554 ^{***}	.349 ^{***}	1,000		
16	.070 [*]	-.010 [*]	-.095 ^{***}	-.087 ^{***}	-.039 [*]	.060 [*]	.087 ^{***}	.062 [*]	.093 ^{***}	.257 ^{***}	.152 ^{***}	.297 ^{***}	.341 ^{***}	.150 ^{***}	.413 ^{***}	1,000	
17	.139 ^{***}	.066 [*]	-.071 [*]	-.056 [*]	-.061 ^{**}	.084 ^{***}	.028 [*]	.037 [*]	.092 ^{***}	.461 ^{***}	.118 ^{***}	.506 ^{***}	.437 ^{***}	.194 ^{***}	.623 ^{***}	.423 ^{**}	1,000
M	58.18	39.06	32.31	37.75	17.75	13.71	13.27	12.77	14.46	16.11	17.82	17.49	17.18	20.82	18.25	15.28	14.36
SD	9.61	5.26	5.85	7.49	2.89	4.09	3.81	3.74	4.16	4.07	4.68	3.11	3.70	2.95	3.61	2.82	3.52

* $p < .05$, ** $p < .01$

주. 1. 과다한 자기기대 신념 2. 이분법적 신념 3. 결정론적 신념 4. 과잉 염려 및 회피 신념 5. 과잉의존신념 6. 부모성취압력1 7. 부모성취압력2 8. 부모성취압력3
9. 부모성취압력4 10. 과제수준선호 11. 감정 12. 행동 13. 교사관계 14. 교우관계 15. 학교수업 16. 학교규칙 17. 학업성취

2.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 추정가능성 확인절차(문수백, 2009; Kline, 2005)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 모델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모델을 분석한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측정모델을 수정하기 위해 비표준화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는 C.R.(critical ratio)값과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을 기준으로 최초 측정모델을 분석한 결과, 비표준화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제거해야할 관측변수는 없었으나 학업실패내성의 감정(9.981)과 학교생활적응의 교우관계(9.364)의 C.R.값이 다른 관측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음을 의미하는 SMC값을 기준으로 볼 때, 학업실패내성의 감정(.177)과 학교생활적응의 교우관계(.129)는 설명력이 부족한 관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모델의 적합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업실패내성의 관측변수 중 감정과 학교생활적응의 관측변수 중 교우관계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들을 삭제한 수정된 측정모델로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적합도 지수 평가에서 수정모델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고 있다.

표 3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N	p	NC	SRMR	CFI	TLI	RMSEA	
									LO90	HI90
측정 모델	40	113	1171.790	.000	10,370	.1026	.863	.835	.104	
									.099	.110
수정 모델	36	84	495.316	.000	5,897	.058	.940	.925	.075	
									.069	.082
	.069	.082				<.10	≥.9	≥.9	<.10	

수정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표 4와 같이 수정모델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4

수정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추정 오차	C.R.	p	표준화 추정치
<u>구조회귀모델</u>							
비합리적 신념	→	학업실패내성	-.041	.015	2.631	**	-.124
부모의 성취압력	→	학업실패내성	.080	.031	2.613	**	.119
비합리적 신념	→	학교생활적응	-.025	.011	-2.311	*	-.085
부모의 성취압력	→	학교생활적응	-.038	.021	-1.782	.075	-.063
학업실패내성	→	학교생활적응	.806	.067	12.073	***	.893
<u>측정모델</u>							
비합리적 신념	→	과다한 자기기대 신념	1.000				.807
비합리적 신념	→	이분법적 신념	.502	.022	22.574	***	.740
비합리적 신념	→	결정론적 신념	.549	.025	22.127	***	.727
비합리적 신념	→	과잉염려 및 회피 신념	.789	.031	25.289	***	.817
비합리적 신념	→	과잉의존 신념	.258	.012	20.820	***	.691
부모의 성취압력	→	부모성취압력 1	1.000				.921
부모의 성취압력	→	부모성취압력 2	.893	.022	40.230	***	.885
부모의 성취압력	→	부모성취압력 3	.870	.022	39.327	***	.877
부모의 성취압력	→	부모성취압력 4	.930	.026	35.905	***	.842
학업실패내성	→	과제수준선호	1.000				.625
학업실패내성	→	행동	.893	.059	15.094	***	.729
학교생활적응	→	교사관계	1.000				.620
학교생활적응	→	학교수업	1.311	.071	18.555	***	.834
학교생활적응	→	학교규칙	.612	.048	12.770	***	.513
학교생활적응	→	학업성취	1.123	.065	17.341	***	.763
비합리적 신념	↔	부모의 성취압력	7.317	1.144	6.394	***	.250

* $p < .05$, ** $p < .01$, *** $p < .0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모델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R.=-1.782, $p > .05$). 이는 초기모델에서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학교생활적응 경

로를 제거해도 모델의 적합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구조회귀모델 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경쟁모형을 채택하였다. 즉, 본 연구의 경쟁모형은 동일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를 가지면서 경로의 수가 다른 내포모형(nested model)으로서 수정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학교생활적응의 경로를 위계적으로 제거한 모형이다.

수정모델과 간명모델이 위계적 모델(hierarchical model)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수정모델과 간명모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D=3.210$, $p=.073$ 으로서 적합도에 있어서 수정모델과 간명모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간명모델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간명모델의 적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N	p	NC	SRMR	CFI	TLI	RMSEA	
									LO90	HI90
간명 모델	35	85	498,526	.000	5,865	.058	.940	.926	.075	
									.069	.082
수정 모델	36	84	495,316	.000	5,897	.058	.940	.925	.075	
									.069	.082
기준						<.10	≥.9	≥.9	<.10	

또한 모델을 평가할 때는 적합도와 간명성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문수백, 2009).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구조회귀모델을 선택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외에 간명 적합도 지수(parsimony fit index)인 PCFI(parsimony CFI)와 PNFI(parsimony NFI)를 채택하였다. 간명 적합도 지수는 두 개 이상의 모델이 있는 경우 간명성을 고려하여 더 나은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수로 더 높은 값을 갖는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 초기모델, 수정모델 그리고 간명모델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초기모델, 수정모델, 간명모델의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지수		초기모델	수정모델	간명모델
적합도 지수	CMIN	1171.790	495.316	498.526
	df	113	84	85
	p	.000	.000	.000
	SRMR(< .10)	.103	.058	.058
	CFI(≥ .9)	.863	.940	.940
	TLI(≥ .9)	.835	.925	.926
	RMSEA(< .10)	.104	.075	.075
간명 적합도 지수	PCFI(≥ .5, .6)	.717	.752	.761
	PNFI(≥ .5, .6)	.707	.743	.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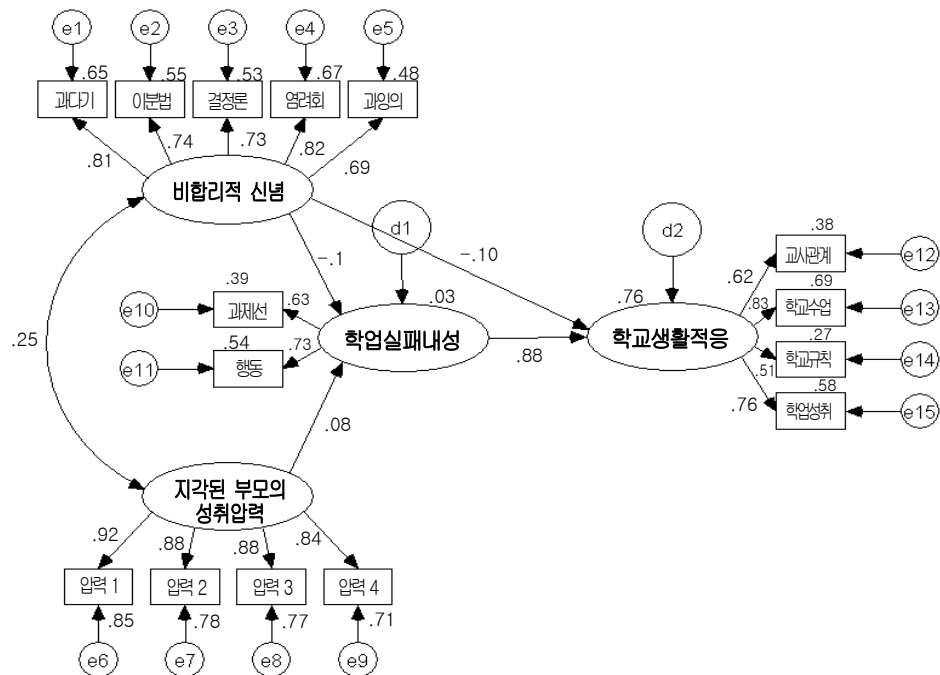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구조회귀모델(간명모델)의 구조회귀계수 추정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의 적합도를 고려할 때 수정모델과 간명모델이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고 있으며, 모델의 간명성을 고려할 때 수정모델보다는 간

명모텔이 더 나은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적합도를 유지하면서도 간명성이 가장 개선된 간명모델을 최종 구조회귀모델로 선택하였다. 최종 구조회귀모델하의 구조회귀계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2 및 표 7과 같다.

표 7

최종 구조회귀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추정 오차	C.R.	p	표준화 추정치
<u>구조회귀모델</u>							
비합리적 신념	→	학업실패내성	-.044	.015	2.842	**	-.133
부모의 성취압력	→	학업실패내성	.057	.028	2.060	*	.085
비합리적 신념	→	학교생활적응	-.030	.011	-2.822	**	-.101
학업실패내성	→	학교생활적응	.794	.065	12.141	***	.883
<u>측정모델</u>							
비합리적 신념	→	과다한 자기기대 신념	1.000				.807
비합리적 신념	→	이분법적 신념	.502	.022	22.568	***	.740
비합리적 신념	→	결정론적 신념	.549	.025	22.126	***	.728
비합리적 신념	→	과잉염려 및 회피 신념	.790	.031	25.276	***	.817
비합리적 신념	→	과잉의존 신념	.258	.012	20.817	***	.691
부모의 성취압력	→	부모성취압력 1	1.000				.921
부모의 성취압력	→	부모성취압력 2	.893	.022	40.201	***	.885
부모의 성취압력	→	부모성취압력 3	.870	.022	39.308	***	.876
부모의 성취압력	→	부모성취압력 4	.930	.026	35.930	***	.843
학업실패내성	→	과제수준선호	1.000				.627
학업실패내성	→	행동	.865	.059	15.039	***	.732
학교생활적응	→	교사관계	1.000				.619
학교생활적응	→	학교수업	1.310	.074	17.796	***	.833
학교생활적응	→	학교규칙	.634	.050	12.710	***	.515
학교생활적응	→	학업성취	1.174	.069	17.087	***	.764
비합리적 신념	↔	부모의 성취압력	7.340	1.144	6.416	***	.251

* $p < .05$, ** $p < .01$, *** $p < .001$

3. 구조회귀모델에서 매개효과 검증

최종 구조회귀모델에서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및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잠재변수 간의 직·간접 효과 분해표

효 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비합리적 신념	→	학업실패내성	-.133*	-.133*	-
부모의 성취압력	→	학업실패내성	.085*	.085*	-
비합리적 신념	→	학교생활적응	.017	-.101**	.118*
부모의 성취압력	→	학교생활적응	.075*	-	.075*
학업실패내성	→	학교생활적응	.883**	.883**	-

* $p < .05$ ** $p < .01$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합리적 신념→학업실패내성,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학업실패내성, 비합리적 신념→학교생활적응, 학업실패내성→학교생활적응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합리적 신념은 학업실패내성에 부적인 직접효과(-.133)를,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실패내성에 정적인 직접효과(.085)를 지닌 것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학업실패내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직접효과(.883)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합리적 신념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인 직접효과(-.101)를 지닐 뿐만 아니라, 학업실패내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비합리적 신념→학업실패내성→학교생활적응=.118, $p < .05$).

또한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실패내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학업실패내성→학교생활적응=.075, $p < .05$).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및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합리적 신념은 학업실패내성에 13.3%의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합리적 신념과 학업실패내성의 관련변인들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김아영, 1997; 이영희, 2007; 하영운, 1996;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비합리적 신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학업적 실패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상황 자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비합리적 신념이 낮고 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학업실패내성이 높아 실패 상황에서 보다 건설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후 긍정적인 성취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실패내성에 8.5%의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 효과가 비교적 작기는 하나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업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는 학습에 도피적이고 체념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들(부영희, 2000; 최해수, 2001; Gonzalez, Greenwood & WenHsu, 2001; Gonzalez, Holbein & Quilter, 2002)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중학생들이 입시를 위한 경쟁구도의 교육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입시정보와 철저한 학습·생활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기대는 자녀가 보다 곤란한 과제에 접근하고 실패 경험을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학습방법을 모색하는 등 건설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또 하나의 생존전략으로서 다소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라는 것은 자녀가 달성가능한 수준의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며 끈기 있게 목표했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기대를 보여줌으로써 학업적 실패 경험 이후에도 자녀들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정서적·행동적 대처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업실패내성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88.3%로 정적인 직접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김아영, 2002; 채호숙, 2007; Kim &

Clifford, 198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학업실패내성이 높을수록 학업장면에서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고 학교수업에 흥미를 느끼며 높은 학업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실패 후 학교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대처 행동을 보임으로써 교사 및 교우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등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적응을 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넷째, 비합리적 신념은 학교생활적응에 10.1%의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김희영, 2003; 문은식, 2002b; 이성근, 2005; 조현주, 2006; Birch & Ladd, 1996;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비합리적 신념은 학업실패내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11.8%의 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를 앞선 논의와 함께 살펴보면, 높은 비합리적 신념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높은 학업실패내성을 갖추고 있다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이 학습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학업실패내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교생활적응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하나 학업실패내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7.5%의 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경옥, 1992; 정숙자, 1994; 정유미, 2001; Gonzalez et al., 2001; Gonzalez et al., 2002; Medinnus, 1965)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선 중학생에게 있어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실패내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자녀가 부모의 성취압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또한 높은 학업실패내성을 갖추고 있으면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취, 특히 학업적 성취에 대한 기대를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받아들이게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자녀를 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부모의 과도한 성취압력은 자녀에게 강한 심

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긴장과 불안으로 정서적 부적응을 겪게 됨으로써 학업적 성취 상황에서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많은 부분이 학습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 대해 건설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기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관심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준다면, 부모의 관심과 기대는 자녀의 정서적·행동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업적 실패 경험 이후에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 및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중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이 학습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학생의 학업적 실패 상황에 대한 내성을 길러줌으로써 실패 경험 이후에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 및 학교차원에서 학업실패내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학업실패내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이라고 할 때 이것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생애 초기부터 부모의 성취지향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자녀의 성취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양육태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자녀들이 올바르게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학업실패내성을 길러주어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데서 그치고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각 변인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서 비합리적 신념과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을 각각 선정하고, 이들이 학업실패내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각 변인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을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들을 측정함에 있어 중학생의 자기보고식 검사를 택하였으나, 좀 더 신뢰롭고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것과 더불

어 부모 및 교사면접, 그리고 관찰을 통한 측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성취압력의 경우 자녀가 지각하는 것과 부모가 보고하는 것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의 경우에도 학생 자신이 보고하는 것과 실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을 박미(2006)가 통합·분류한 다섯 가지 신념으로 제한하여 고찰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Ellis가 지정한 대표적인 비합리적 신념 11가지 모두를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여 비합리적 신념의 영향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성취압력은 자녀들에게 통합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부모의 성취압력을 단일하게 보았으나, 부와 모의 성취 상황에 대한 기대와 압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녀에게 주양육자로서 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도 지각되는 성취압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의 성취압력과 모의 성취압력 각각과 이들의 상호작용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을 비합리적 신념과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으로 각각 한정하여 고찰하였는데,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을 포함하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 및 선행연구들을 통해 중학생의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이 학습활동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학업실패내성이 많은 영향을 미침을 보았다. 그리고 이에 앞서,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실패내성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패내성은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으로서 입시와 성적 위주의 제한된 교육환경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학생들의 학업실패내성을 증진시키고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최초의 환경인 부모-자녀 관계에서부터 부모들이 성취지향적이고 애정지향적인 태도로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합리적 신념,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 학업실패내성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회귀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상담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차원적 학교생활적응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더불어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중학생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담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희 (1999). **초등학교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이 우울·불안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본용 (2007).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완벽주의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8(2), 707-718.
- 권미화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합리적인 신념간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옥 (1992).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생의 정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아영 (1994). 한국형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학 연구**, 32(3), 59-75.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아영 (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김애경 (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6(3), 31-50.
- 김영효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화합도, 학습된 무기력, 학구적 실패내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용래, 허남진 (2003). 학습동기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분석. **교육연구논총**, 20, 5-24.
- 김은옥 (2008). **학교부적응 중학생을 위한 학교적응력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영 (2003). **초등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모혜연 (2000). **청소년기 스트레스 요인과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은식 (2002a).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발전논총**, 23(1), 153-167.

- 문은식 (2002b).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 미 (2006). **비합리적 신념과 자기존중감이 초등학생의 학업지연 특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수자 (1996).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습소의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미 (2004). **아동의 모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근 (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성취동기 및 자기효감**.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부영희 (200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감성지수(EQ)가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준호 (1993). **국민학교 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과 부적응행동**.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은주 (2009). **청소년의 부적응적 사고와 자기통제력이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수정 (2003). **중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희숙 (2002).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학업실패내성 척도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미라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근 (2005). **초등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부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 우희정, 김미란 (2000).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학회지, 3(1), 64-72.
- 이연희 (2009). **아동복지시설 거주 중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독서요법프로**

- 그림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희 (2007). **가족 및 개인 변인이 고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옥영 (2005). **중학생들의 생활양식, 비합리적 신념 및 부적응 행동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우경 (1998).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생활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영, 김경혜 (200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0(1), 105-119.
- 이정희 (1994).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연, 하정희, 전수현 (2006). **성취상황에서 부모태도가 청소년의 미래 성공기대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우울을 매개로.** **교육심리연구**, 20(4), 873-890.
- 이혜경 (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화정 (2002). **가족 형태와 아동의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생활적응.**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진 (2007).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따른 성취압력과 학업성취의 관계: 학업동기, 학습태도, 학업적 자기개념을 중심으로.** 성산호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혜경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성격특성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숙자 (1994). **유아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유미 (2001).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복미 (2001). **고등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현주 (2006).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호숙 (2007).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미자 (2006).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 및 창의적 성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해수 (200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의 부담감 및 반응 행동 양식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하영운 (1996). **대학생의 자아강도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하정희, 조한익 (2006a). 완벽주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7(2), 595-611.
- 하정희, 조한익 (2006b). 비합리적 신념에 따른 완벽주의의 순기능과 역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73-896.
- Bandura, A. (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윤운성, 정정옥, 가경신 역.). 서울: 학지사. (원저는 1995 출판)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irch, S. H., & Ladd, G. W. (1996).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school environment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The role of teachers and peers. In K. R. Wentzel, & J. Juvonen (Eds.), *Social motivation: Understand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ck, J., & Block, J. H. (2006).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61(4), 315-327.
- Brook, A. T. (2005). *Effects of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self-regulation of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ical Today*, Novem, 34-52.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56(2), 267-283.
- Clifford, M. M., Kim, A., & McDonald, B. A. (1988). Responses to failure as influenced by task attribution, outcome attribution, and failure toleranc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57, 19-37.
- Davies, M. F. (2006). Irrational beliefs an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Journal of Rational Emotive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 24(2), 113-124.
- Donna, M. S. A. (2001). *Adolescent lives in transition: Social class influences on the adjustment to middle 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Donna, M. S. A. (2004). *Adolescent lives in transition: How social class influences on the adjustment to middle school*.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Ellis, A. (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Lyle Stuart.
- Flett, G. L., Hewitt, P. L., & Singer, A. (1995). Perfectionism and parental authority styles. *Individual Psychology*, 51(1), 50-61.
- Franke, A., & Snyder, M. L. (1978). Poor performance following unsolvable problem: Learned helplessness or egot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415-1423.
- Gonzalez, A., Greenwood, G., & WenHsu, J. (2001). Undergraduate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parenting styles. *College Student Journal*, 35(2), 182-193.
- Gonzalez, A., Holbein, M. F., & Quilter, S. (2002). High school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parenting styl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7(1), 450-470.
- Gonzales, N. A., Tein, J., Sandler, I. N., & Friedman, R. J. (2001). On the limits of coping: Interaction between stress and coping of inner city adolescent. *Journal of Adolescents Research*, 16, 372-295.
- Kim, A., & Clifford, M. M. (1988). Goal source, goal difficul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as predictors of response to failure. *British Journal of*

- Educational Psychology*, 58, 28-43.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ffler, A. M. (2005). *Perceptions of beliefs in rational emotive theory among college students: A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fstra University.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58, 1168-1189.
- Latham, G. P., & Locke, E. A. (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212-247.
- Medinnus, G. R. (1965). Adolescence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50-154.
- Mertler, C. A., & Vannatta, R. A. (2005). *Advanced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Practic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3rd ed.). Glendale CA: Pyrczak Publishing.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 (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4), 687-696.
- Missall, K. N. (2002). *Reconceptualizing early school adjustment: A search for intervening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Pianta, R. C., & Stuhlman, M. W. (2004).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uccess in the first years of school. *School Psychology Review*, 33(3), 444-458.
- Xiao, H. S. (2007). Development of irrational belief scale of middle school student. *Chinese Mental Health Journal*, 21(10), 690-692.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rrational beliefs, perceived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Kim, Eugene* · Kim, Jong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rrational beliefs, perceived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use as data analysis tools were the SEM by AMOS. The conclusions from both the results and discussions surrounding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rrational beliefs had a negative and direct effect on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chool adjustment. Additionally, it also had a positive and indirect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academic failure tolerance. Second, perceived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had a positive direct effect on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a positive and indirect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academic failure tolerance.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EM as a tool for measu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rrational beliefs, perceived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Moreover, these findings may provide parents, teachers and school counselors with useful insights as to how they better take care of and counsel their children in achievement settings to help enhance academic failure tolerance for the overall goal of successful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irrational beliefs, perceived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school adjustment, academic failure tolerance

투고일 : 2013. 3. 11, 심사일 : 2013. 3. 25, 심사완료일 : 2013. 4. 20

* Dong-a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Education